

‘이종범 은퇴식’ 광주에 부는 바람... 바람... 바람...

내일 무등야구장 KIA-LG전에서 팬들에 작별 인사

“떠나는 영웅 보자” 표구하기 전쟁·기념품도 매진

서울팬 대거 광주로... 기차표 동나 ‘교통대란’ 예고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마지막 바람이 뜨겁게 분다.

은퇴를 선언한 ‘프로야구의 전설’ 이종범이 26일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리는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팬들 앞에 다시 선다. 이종범은 이날 은퇴식을 통해 정들었던 그라운드와 야구팬들에게 작별을 고한다.

떠나는 영웅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한 팬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KIA 팬들은 이종범의 은퇴식을 위해 예매 전쟁을 벌였다. 19일 오전 11시 은퇴식 경기 티켓 인터넷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표가 불타나듯이 팔려나갔다. 이날 인터넷 예매분 1만1500장은 단 15분 만에 매진됐다.

무등경기장 전체 좌석은 1만2500석으로 남은 현장 판매분 1000장을 놓고 당일 표구하기 전쟁도 예고되고 있다.

표구하기 비상이 걸리면서 인터넷 중고품 거래 카페와 티켓 양도 카페에서는 웃돈까지 더해져서 이종범 은퇴식 티켓이 판매되고 있다. 어렵게 표를 구한 원정팬들은 또 다른 예매를 위해 손품을 팔고 있다.

개인적으로 광주를 방문하는 이들도 있고, 서포터즈 레드탑 수도권 회원 50명이 원정을 나서는 등 단체 원정팀들까지 더해져서 26일 서울은 물론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 충청 등지에서 수 천명의 팬들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월요일인 28일이 석가탄신일로 황금연휴가 형성되면서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수요일까지 더해져, 금요일 오후부터 은퇴식 당일 토요일 오후까지의 서울발 광주행 기차 티켓이 동이 났다.

기차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고속버스 티켓을 예매하거나 카풀을 구성하면서

이종범 은퇴 기념품



기념볼



기념 유니폼

광주행을 준비하고 있다.

은퇴식 당일 진행될 사인회 이벤트도 23일 KIA 구단 홈페이지 공고와 함께 마감됐고, 은퇴 기념품 상품 판매에도 불이 붙었다.

24일 기념구 세트는 판매에 들어가자마자 준비된 수량 350개가 모두 팔려나갔고, 은퇴 기념 금장 유니폼도 10만5000원이라는 금액

에도 불구하고 판매 첫날에만 200장이 주문 예약됐다. 한편 KIA는 은퇴식 당일 발매되는 티켓을 별도 제작한다. 이날 티켓에는 이종범의 사진과 함께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범’이라는 문구가 삽입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새 용병 헨리 소사 영입

라미레즈 대체 투수

KIA 타이거즈가 호라이시오 라미레즈 대체 선수로 헨리 소사(27·우투우타·사진)와 계약금 5만 달러, 연봉 16만 달러 등 총 21만 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인 헨리 소사는 우완 투수로 신장 186cm, 몸무게 95kg의 체격을 갖추고 있으며 150km에 육박하는 강속구가 주무기다. 포 커브와 슬라이더가 수준급으로 안정적인 투구 밸런스와 탈삼진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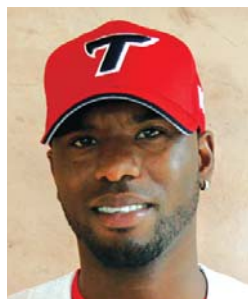
헨리 소사는 지난 2006년 샌프란시스코

투키 리그를 통해 미국 무대에 데뷔한 뒤 지난해 메이저에 첫 발을 디뎠다.

휴스턴에서 10경기에 선발로 나서 3승 5패의 성적을 남겼으며 53이닝 동안 54피안타 23볼넷 38탈삼진 방어율 5.23을 기록했다. 올 시즌에는 트리플 A인 오클라호마에서 6경기에 선발 등판, 31과3분의2이닝 동안 37피안타 10볼넷 21탈삼진 5.12의 방어율을 기록했다. 마이너 통산 기록은 41승 21패 방어율 3.62이다.

헨리 소사는 25일 ‘소사’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선발 한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좌완 라미레즈는 지난 23일 한화와



의 경기를 끝으로 KIA 유니폼을 벗었다. 라미레즈는 이날 4-3으로 앞선 9회말 마무리 투수로 나서 땅볼과 삼진으로 두 아웃을 잡았지만 연속 볼넷을 허용한 뒤 마운드를 내려왔다.

KIA는 24일 한국야구위원회에 라미레즈에 대한 웨이버공시를 요청했다.

선동열 감독은 “헨리 소사는 공을 쉽게 던진다. 본인도 선발을 원하고 있고 볼펜피칭도 소화한 만큼 따로 중간에 기용하지 않고 주말에 바로 선발로 투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① 덕아웃 말말말

▲그러면 20승이지 = 23일 윤석민의 변화구 완급조절이 아쉬웠다고 말하던 선동열 감독, 코너워크가 자유자재로 가능하다면 직구 하나만으로도 10승이 가능하고 좋은 변화구 하나만으로는 5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던 중 둘 다 갖추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뿔라 하는 거야 = 김진우, 혼련이 끝난 뒤 새로운 외국인 선수 헨리 소사가 영어로 얘기를 걸자.

변화구 완급조절 된다면

윤석민은 당연 20승이지

▲저도 어려워요 = 다른 타자들은 박찬호의 볼을 어려워 하던데 왜 이렇게 잘 쳤냐는 질문을 받은 김선빈, 김선빈은 23일 박찬호를 상대로 3개의 안타를 뽑아내며 팀의 4-2 승리의 주역이 됐다.

▲중일 치네 = 공을 잡기 위해 덕아웃에 대기하고 있던 이준호, 김선빈이 배팅 게이지에서 나오지 않자.

▲찬호형은 재미있겠어요 = 최희섭, 박찬호가 등판 때마다 많은 관중 앞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며, 박찬호가 선발로 나온 23일 광주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1만 명이 넘는 관중이 찾았다. 박찬호는 올 시즌 7경기 연속 매진 기록을 작성하는 등 흥행의 중심이 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정태 우승 ‘페달’

전국장애인 사이클대회
IDD 1부 22km 도로일주

광주 장애인 사이클대표팀 이정태가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2012 제6회 제주삼다매 전국장애인 사이클대회 IDD 1부 22km 도로일주에서 우승했다.

이정태는 부산 김지호와 같은 팀 윤순재를 간발의 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적 장애 2급인 그는 160cm도 채 안 되는 작은 키이지만 평소 철인 3종경기와 사이클을 병행하며 강철체력을 다져왔다. 광

주 서석중 재학 시절 검도를 즐겼던 이정태는 2010년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사이클팀을 맡아 지도하고 있는 허금래 감독을 만나 사이클에 입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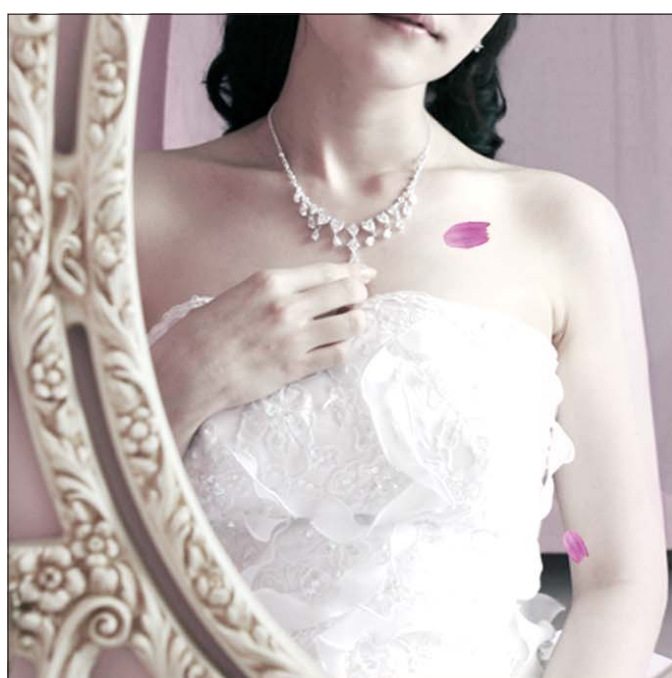
허 감독의 지도 아래 이정태는 2010년 대전에서 열린 제30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남자 개인도로 27km IDD 은메달과 남자 개인도로독주 18km IDD 동메달, 2011년 경남에서 열린 제3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남자 개인도로 30~60km 금메달과 남자 개인도로독주 15~25km 동메달 획득의 쾌거를 올렸다.

이정태는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면 나



도 모르게 힘이 솟고 행복하다”며 “10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7월~8월**

예약문의_ 062-221-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